

# 익산시-완주군, 국가철도망 구축 맞손

### ‘국가식품클러스터 인입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사업 반영 공동건의문에 서명

익산시와 완주군이 ‘국가식품클러스터 인입선’ 철도사업 구축에 두 손을 맞잡았다.

30일 익산시에 따르면 정현을 익산시장과 유희태 완주군수는 익산시청 상황실에서 국가식품클러스터 인입선 사업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 신규사업 반영을 요청하는 공동건의문에 서명했다.

총사업비 5,543억 원이 예상되는 국가식품클러스터 인입선은 전라선 중 익산 신호장에서 분기해 국가식품클러스터와 완주산단의 12.2km를 잇는 여객·화물 병용 단선전철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공동건의문에는 국가식품클러스터(70만 평), 완주산단(320만 평)과 향후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63만 평), 완주수소특화 국가산단(50만 평)의 성공적인 조성과 도민의 교통편익 증진을 위한 필요성을 담고 있다.

또한 새만금 신항과 내륙을 연결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임을 강조했다. 익산시와 완주군은 이날 서명한 공동건의문을 전북특별자치도와 국토교통부에 전달하고 국가식품클러스터 인입선에 대한 필요성과 두 시군의 추진 의지를 적극 설명할 예정이다. 유희태 군수는 “국가식품클러스터 인입선은 완주산단의 대규모 물동량을 처리하고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노선”이라며 “향후 완주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서도 반드시 이번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현을 시장은 “새만금 글로벌 푸드산업 지원과 국가식품클러스터의 물동량 처리를 위해 국가식품클러스터 인입선 추진을 통한 물류 체계 구축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교통·물류망 확충에 정부의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완주=염재복 기자



## 컬버시 청소년 교류단, 익산시의회 방문

### 김경진 의장 “이번 교류는 글로벌 시민으로 성장하는데 큰 의미”

익산시의 국제 자매도시인 미국 컬버시 청소년 교류단이 지난 29일 익산시의회(의장 김경진)를 방문했다.

익산시는 관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미국 컬버시와 청소년 홀스테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교류단은 지난 25일부터 10박 11일의 일정으로 익산을 찾았다.

김경진 의장, 강경숙 부의장, 최재현 보건복지위원장, 소길영 산업건설위원장 등은 이날 시의회를 방문한 컬버시와

익산시 청소년들과 학부모, 인사자들을 따뜻하게 맞이하고 격려했다.

김경진 의장은 “청소년 교류는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청소년들이 만나 새로운 문화를 접하고 배우며 서로 다른 관점을 이해함으로써 점차 글로벌 시민으로 성장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면서 “이번 교류를 통해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다른 문화를 배우는 알찬 시간 보내길 바란다”고 전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 군산시, ‘농식품바우처 꾸러미 배송’ 시범 운영

### 배송 희망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내달 23일까지

군산시(시장 강임준)는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 수혜자 중 거동불편자 등을 대상으로 ‘농식품바우처 꾸러미 배송 시범운영’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지원금액에 해당하는 꾸러미 세트(A, B형)를 구성하여 대상자에게 배송해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간 군산시는 올 4월부터 저소득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 강화와 영양 보충 지원을 위해 월 4만원(1인가구 기준), 월 5만7,000원(2인가구 기준) 등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으로 바우처 카드를 제공하는 ‘농식품바우처 시범

사업’을 추진해왔다.

이 가운데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 수혜자 중 거동이 불편하여 관내 로컬푸드 직매장 등 방문이 어려운 분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꾸러미 배송 시범운영을 먼저 실시할 계획이다.

꾸러미 품목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고기류(삼겹살, 한우 국거리) 및 쌀채류(상추, 깻잎 등)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구원 수 및 지원금액에 따라 각 품목의 용량에 차등을 두어 꾸러미를 배송할 예정이다.

농식품바우처 꾸러미 배송 희망자는

8월분 총정금액 전액 사용 후 8월 23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꾸러미 배송 신청 후 사용하던 바우처 카드를 반납하면 된다.

군산시는 8월 중 대상자를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바우처 꾸러미 배송 대행기관은 (재)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서 배송하는 것으로 지난 7월 농식품바우처 지역협의회를 통해 결정되었으며, 9월 첫째주에 확정 대상자에게 일괄 배송된다.

/군산=이재춘 기자

## 익산시 보건소, 걷기 챌린지 운영

### ‘더워도 다시 한번, 작심 9만 보’... 목표 달성자 100명에게 경품

익산시 보건소가 무더운 날씨 탓에 신체활동이 부족해 지기 쉬운 여름철 주민들의 건강 관리를 위해 ‘더워도 다시 한번, 작심 9만 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더워도 다시 한번, 작심 9만 보’는 8월 걷기 챌린지로 8월 5일부터 24일까지 20일 동안 목표 걸음 9만 보를 달성하면 된다. 목표 걸음을 달성한 참여자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100명을 선별하고 경품을 전달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구글 플레이

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워크온’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익산시 공식 커뮤니티’에 가입해 참여하기를 선택해야 한다. 이후 휴대전화를 소지한 채 걸으면서 9만 보 달성 후 걷기 챌린지의 ‘응모하기’를 신청하면 된다.

한편 익산시 보건소는 시민들의 건강 관리를 위해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워크온’을 통해 매일 1회 걷기 챌린지를 진행하고 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보건사업과(063-859-4911, 4915, 4917)로 문의하면 된다.

/익산=이재춘 기자

## 익산시-원광대, 시민개방형 체육시설 조성사업 협약 체결

### 35억원 투입해 야구장·테니스장·풋살장·족구장 등 조성

익산시가 원광대학교와 함께 체육시설 주변 확대 및 시민 체육활동 증진에 힘을 모은다.

시는 30일 정현을 익산시장과 박성태 원광대학교 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익산시청에서 ‘원광대 시민개방형 체육시설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체육

시설 조성을 지원하고 시민 편의를 위해 시설과 주차장 개방에도 상호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익산시는 전북특별자치도에서 공모한 체육진흥시설 지원사업에 선정됐으며, 총사업비 35억원을 투입해 원광대 약 2만5,000㎡ 면적에 야구장, 테니스장, 풋살장, 족구장 등을 조성한다. 원광대 학생뿐만 아니라 익산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과 교내 주차장은 평일 저녁, 주말·공휴일에 상시 개방될 예정이다.

특히 협약에는 대학로 인근 주차난 해소를 위해 원광대학교 남문주차장 160명을 상시 개방하는 지역 상생 방안이 포함돼 있다.

익산시는 주변 상권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주차 편의를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익산=이재춘 기자

## 익산역~만경강, 자전거길 조성 완료

익산시가 자연과 호흡하며 자전거로 익산역에서 만경강까지 달릴 수 있는 기반을 완성했다.

시는 익산역을 시작으로 평화동 시외버스터미널~목천포천~만경강을 잇는 3.1Km 구간에 자전거길 조성을 완료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자전거길 구간은 도심에서 벗어나 만경강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 시민들과 자전거 동호인들의 여가 활동 공간을 확대했다.

아울러 인근 지역 주민들이 도심 지역까지 자전거로 왕래할 수 있는 안전

한 교통 환경을 마련했다.

익산시는 시민들과 자전거 동호인들이 자전거를 타고 지역 곳곳을 다닐 수 있도록 자전거길을 운영·관리하고 있다.

시내권 123개 노선과 탐천, 금강에 각각 1개 노선이 있어 총 125개 노선 170km가 구축돼 있다.

또한 만경강 사수정과 옹포 골짜기 등에 자전거 무료 대여소를 설치하고 시민들과 관광객을 위해 매년 3월부터 11월까지 주말과 공휴일에 운영하고 있다.

/익산=이재춘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 고스란히 남아있는 백제 장인의 숨결

전주매일 캠페인

##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익산 왕궁리 유적에 있는 오층석탑이다. 1965년부터 1966년에 보수를 위한 해체와 복원을 실시하였고 이때 흙 속에 묻혀 있던 돌로 만든 기단부가 발견되었다. 1층 옥개석 상면과 기단부 심초석 상면에 마련된 사리공에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사리장엄구 ‘국보 제123호’를 수습하였다. 창건에 대한 문헌 기록이 없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정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의 건립 연대는 백제 시대에서 통일신라, 고려 시대 초까지 논란이 다양하다. 1939년부터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을 중심으로 본격적 발굴 조사를 실시한 결과, 백제 시대에 경영되었던 궁성이 폐기되자 궁성 터에 탑·금당·강당을 남북 일직선으로 배치한 백제의 전형적인 1탑 1금당식 사찰을 지은 것으로 밝혀졌다. 본래 목탑이었던 것이 현재의 석탑으로 바뀌었고 백제 멸망 이후에도 범등을 계속 이어 갔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1963년 1월 21일 보물 제44호로 지정되었고, 1997년 1월 1일 국보 제289호로 승격 지정되었다가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청 고시에 의해 문화재 지정번호가 폐지되어 국보로 재지정되었다.

\*\*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향토문화전자대전